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

놀라운 혁신에 찬사를 보내는 새로운 미닛 리피터 칼리버와 예술적 독창성

주요 특징:

- **새로운 칼리버 953:** 7 개의 특허 발명품을 포함한 통합 무브먼트
- **메티에 라르™ 노하우:** 4 시간의 기요세 작업과 8 시간의 에나멜링으로 완성한 인하우스 에나멜 다이얼
- **조절 가능한 폴딩 버클:** 46 개의 핑크 골드(18K, 750/1000) 부품, 무게 30g, 0.5mm 길이 조절 가능
- **새로운 노난티엠 컬렉터 박스에 속하는 모델:** 예거 르쿨트르의 지속적인 워치메이킹 전문성을 기리는 특별한 컬렉터 박스의 6 가지 컴플리케이션 리베르소 중 하나

예거 르쿨트르는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953 을 탑재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선사하는 앞면과 뒷면의 독특한 다이얼은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뛰어난 작업을 보여줍니다. 3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는 리베르소의 독특한 회전 케이스와 아르데코 디자인이 어떻게 스타일의 아이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 기록의 기계적, 미학적 측면 모두에서 혁신을 위한 탁월한 캔버스가 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폴로 경기장에서 하이 컴플리케이션까지 - 아이콘의 진화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던 리베르소는 곧 남성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서 본래의 스포츠용 목적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아이코닉한 양면 케이스(특허 CH159982)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는 스타일과 기능의 완벽한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르데코 미학에 기반을 둔 이 모델은 그랑 메종의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리베르소의 칼리버는 생산 초기부터 직사각형 케이스의 곡선을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하여 칼리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독창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1931 년, 이 모델은 파인 위치메이킹의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독특한 직사각형 케이스에는 그 형태에 맞춰 디자인된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충격과 습기,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칼리버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 케이싱 링에 고정했습니다.

매뉴팩처의 이러한 기술적 도전은 1990 년대 초, 예거 르쿨트르가 리베르소에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면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랑 메종은 1994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 미닛 리피터를 통해, 예거 르쿨트르 최초의 소형화된 손목시계용 미닛 리피터와 메종 최초의 직사각형 미닛 리피터 무브먼트를 탑재한 리베르소 미닛 리피터를 선보였습니다.

차이밍 위치의 유산과 미닛 리피터 칼리버의 지속적인 혁신

위치메이커들에게 있어 미닛 리피터는 시계 컴플리케이션 중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단순한 시계의 가치를 넘어서는 소형화된 악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870 년에 최초의 미닛 리피터를 생산하고 1900 년 이전에 100 점에 가까운 걸작을 제작하면서 이 분야의 기술을 완벽하게 숙달했습니다. 20 세기에도 매뉴팩처는 혁신을 거듭했으며, 1994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 미닛 리피터는 직사각형 케이스 형태에 맞춘 무브먼트를 장착하기 위해 컴플리케이션을 재설계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공명 및 증폭을 위한 '사운드 박스'의 공간이 좁고 공의 모양을 반드시 바꿔야 했기 때문에 특히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차임 무브먼트의 기계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선명하면서도 아름다운 사운드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음질을 향상시키는 발명으로 수많은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최근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 유리에 직접 부착되어 더 깨끗한 사운드와 볼륨을 높여주는 크리스탈 공(2005)과 트레뷰셰 해머(2009) 등이 있습니다. ‘투석기’ 동작을 만드는 관절형 팔로 설계된 이 해머는 소리 크기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적은 에너지로 공을 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또 다른 주요 발명(2021 년 칼리버 185 에 도입)은 기존 소네리 칼리버에서 ‘간격을 메워주는’ 15 분 단위의 차임이 없을 때 발생하는 시간과 분 사이의 무음 구간을 없앴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풍부한 차임 메커니즘의 유산을 통해 그랑 소네리 컴플리케이션에 사운드에 대한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그랑 소네리는 차임 컴플리케이션의 정수로, 시계처럼 시간과 15 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착용자가 원하는 대로 미닛 리피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2009 년, 칼리버 182 는 그랑 소네리를 포함한 26 개의 컴플리케이션과 12 개의 특허, 1,400 개의 부품을 놀라울 정도로 얇은 10.4mm 무브먼트에 탑재하여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걸작은 정확성과 예술성, 워치메이킹의 우수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메종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메종에서 제작한 모든 차임은 꼼꼼하게 녹음 및 보존되어 워치메이커들이 정확한 음색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사운드 아카이브가 있기에 언제든지 정확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각의 음이 선명하고 조화롭게 공명하여 최상의 음향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각 차임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비교함으로써 한 치의 타협도 없는 정확한 사운드와 탁월함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를 위한 새로운 칼리버와 참신한 디자인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는 모든 무브먼트와 마찬가지로 매뉴팩처에서 자체적으로 고안 및 설계, 제작된 새로운 무브먼트인 칼리버 953 으로 구동됩니다. 여기에는 차임의 음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발명품을 포함하여 트레뷰셰 해머(특허 EP2048548A2), 크리스탈 공(특허 CH698533), 무음 구간 제거(특허 CH709152B1)와 같은 기존 특허 7 가지가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칼리버의 파워 리저브는 48 시간으로, 미닛 리피터와 같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는 새롭게 디자인된 에나멜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두 다이얼 모두 같은 시간을 표시하고 세련된 장식이 더해졌지만, 그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앞면 다이얼에는 발리콘



기요세 패턴이 장식되어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받아 움직이는 듯한 시각적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기요세는 새로운 톨 블루 컬러로 채색된 여러 겹의 그랑 퓨 에나멜로 인해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기요세와 에나멜링은 모두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제작되며, 기요세에는 4 시간, 에나멜링에는 추가로 8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뒷면 다이얼은 오픈워크로 제작되어 정교한 리피터 메커니즘이 온전히 겉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 역동적인 부품의 움직임은 쉽게 잊히지 않을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레일웨이 미닛 트랙의 캔틸레버 각면 인덱스는 시각적 깊이와 더불어 명확한 가시성을 보장하며 마치 메커니즘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브릿지는 수공으로 베벨링 처리되었으며, 브러싱 및 그레인 처리된 표면은 장식 마감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메탈의 차가운 실버 톤은 케이스의 따뜻한 핑크 골드(18K, 750/1000)와 대비를 이룹니다. 7 시에서 5 시 방향까지 무브먼트 전체에 걸쳐 해머를 지지하는 브릿지는 앞면 다이얼과 어울리는 블루 래커로 장식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시계 케이스 측면에 차임 장치를 구동하는 슬라이더를 설치하기 위해, 인체공학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번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 버전에 맞춘 간결한 슬라이더를 제작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의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완성하는 핑크 골드 케이스는 작은 스케일의 앨리게이터 가죽 안감을 덧댄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및 조절 가능한 폴딩 클래스프와 대조를 이룹니다. 전체 핑크 골드로 제작되어 무게가 약 30g 인 버클은 0.5mm 까지 미세 조정이 가능한 더블 휠 메커니즘을 탑재했습니다. 46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버클은 인체공학적 혁신과 시간을 뛰어넘는 우아함을 결합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통합 매뉴팩처에서 한 지붕 아래 모인 180 가지 기술을 증명하는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는 리베르소 디자인의 다양한 매력과 영원한 현대성에 찬사를 보내며, 시간 기록의 기계적 측면과 미학적 측면 모두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그랑 메종의 끊임없는 탐구를 보여줍니다.

노란티엠 컬렉터 박스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와 함께 아이코닉한 리베르소 탄생 90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컬렉터 박스를 선보입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케이스는 위치메이킹



혁신과 예술성의 정점을 상징하는 6 점의 리베르소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리베르소 탄생 60 주년을 기념하여 1991 년에 제작된 컬렉터 박스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에디션은 안목이 뛰어난 컬렉터에게 시계 역사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유니크한 리베르소 모델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 내 6 개의 수납공간은 시계의 영구적인 유산과 유명한 컴플리케이션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박스는 그 자체로 럭셔리와 기능성, 시대를 초월하는 미학을 결합하여 탁월한 장인 정신을 이어가는 예거 르쿨트르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

케이스: 핑크 골드(18K, 750/1000)

크기: 51.1 x 31mm, 두께 12.6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53

기능: 다이얼 두 개에 시간 및 분, 미닛 리피터

파워 리저브: 48 시간

앞면 다이얼: 톨 블루 에나멜 기요세

뒷면 다이얼: 오픈워크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작은 스케일 엘리게이터 가죽 안감

버클: 조절 가능한 폴딩 버클

제품 번호: Q7122480

3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건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5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